

11. 소련측은 왜 KAL 007 승객들과 승무원들을 "몰살 시켜" 증거를 없애버리는 대신에 그들을 살아남게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번 질문 참조.]

KAL 007기 승객들과 승무원들의 운명에 관한 질문은 외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잡혔을 경우 소비에트 연방이 사용했던 방법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전쟁 포로/행방 불명된 군인들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래의 모티브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1. 소련측은 외국인 인질을 서구로부터 정치적 이권 획득, 인공 위성 통치권에 대한 서구측 인정, 체포된 스파이 반환 등을 위한 "협상 칩"으로 사용했다.
2. 소련측은 외국인 인질을 서구 측에서 경제적 "신용"을 (강제) 획득하는데 사용했다.
3. 외국인 인질들은 실패한 경제 방식인- 공산주의를 위한 강제 노동력을 추가하는데 사용되었다. (사실 상, 러시아는 KAL 007기 생존자들이 강금되어 있다고 우리가 믿고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여전히 외국인 강제 노동을 시행하고 있다고 최근에 밝혀진 바 있다. KAL 007 생존자와 러시아 연방의 강제 노동 캠프 (<http://www.rescue007.org/docs/LaborCamps.pdf>) 참조.)
4. 1953년 KGB 수반 라벤텐트리 베리아 (Lavetry Beria) 와 그의 부관들- 카블로프 (Kabulov) 대령 등이 처형되고 난 이후로, 현재 형무소 교도관들과 그 지지자들도 내일의 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복과 징벌에 대한 두려움은 정치범에 대한 (가장 모진 고문 뿐 아니라) 처형 관습도 감소시켰다.
5. 글라스노스트 (Glasnost-개방) 와 KGB, 소련의 억압적인 체제 시스템에 대한 책들이 출간되기 시작하면서 KAL 007기 승객들과 승무원을 몰살하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했을 것이며 이러한 위험 요소가 그들의 몰살을 막았을 것이다.
6.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적인 자비의 개념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이며 여전히 성서를 따르는 미국으로서는, 잡힌 사람들을 단순히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지않거나 필요에 따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전 소련 정권 당시 형성된 심리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들은 처벌되어야 하거나, 정복된 사람들로써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강제 노동하도록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강제 노동"은 정복자를 위한 경제적 이익 측면보다는 정복 당한 사람들로써 해야 하는 것이며 승리자들의 승리의 입증인 것이다. 이를 설명하자면 -1945년 9월 런던에서 소련측 외무부 인민의원, 몰로토프 (Molotov) 는 트루먼 대통령의 국무장관, James F. Byrnes 에게 (일본군을 해체하여 집으로 보내려는 미국 정책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들 [일본인들] 은 전쟁 포로로 강금되어야 합니다. 우리 [연합군] 는 정규군 [Red Army] 이 만주 땅에서 잡힌 일본군 [약 500,000명] 에게 했던 대로 해야 합니다-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죠..."